

우리 몸은 '가족자루?'



해외불교칼럼

오래 전에 친하게 지내던 젊은 아일랜드 신부님이 있었는데 불교로 치면 수계를 마치자마자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나 싶다. 그는 처음엔 서울 돈암동 부근의 어느 수도원에서 안거 정진을 하다가 이내 강원도 홍천으로 단행을 떠나더니 나중엔 전라도 끝에 있는 흑산도의 공소, 이를테면 사찰이라기엔 아주 작은 암자로 간 뒤부터 서로 연락이 끊겼다.

어릴 때 음식만 입에만 넣으면 대뜸 토하는 기이한 고통을 겪었다는 그는 고향마을 신부님의 치유에 감동하여 사제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는 본디 모국어인 켈트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심성도 참 가지런했다. 그런 그가 잠시 뜻밖의 '시험'에 든 적이 있었다. 외국인이라면 그저 '발라당' 뒤집어지는 한심한 부류와는 달리 미모와 교양을 얼마간 갖춘 어느 한국 아가씨가 그를 너무 좋아해버린 것이다. 이역만리에 홀로 와 있는 그에게 친숙한 시험이었겠지만 이내 잘 처리했다. 그 미인 아가씨에게 무슨 말을 아저 했기에 그렇게 심사일이 풀렸는지 내가 물자 그가 대답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움이란 그저 피부의 두께일 뿐이죠(Beauty is just skin-deep). 사람의 실감은 여러 지저분한 내용물은 담는 '가족자루'랍니다." 그 말에 그 아가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만 우리 둘은 그저 웃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어느 여성 불자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읽다가 가족자루라는 그 재미있는 낱말과 또 만나게 됐다. 세계적인 아마추어 논객들이 불꽃을 튀기는 블로그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바브라 오브리언 보살



불교에서는 육신을 꾸미는 것도 집착으로 본다. 사진은 두피관리 행사 장면. <현대불교지로서진>

님의 얘기 중 일부다. "난 오늘 아침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르려고 파라펠라 미용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앉아 패션잡지를 펼쳤다. 그러곤 금년 여름엔 어떤 스타일의 비키니 수영복이 뜰 거라는 등 그런 저런 기사들을 훑다가 나도 몰래 피식 웃고 말았다. 내게 처음 참선을 지도해주셨던 스승님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사람의 몸을 '가족자루'라고 말씀하셨다. 뇌와 오장육부라는 기본내용물이 담긴 가족자루는 골격과 근육으로 모양이 잡히고 또 움직인다. 그리고 가족부대 안을 뚫는 혈액과 기타 체액은 그 기본 내용물의 원활한 신선대사를 돕는다. 그 작업의 부산물인 대소변이 밖났없이 가득 고였다가 빠져나가는 이 가족자루에는 여성의 경우엔 태반 태아를 포함해서 체내에 기생하는 여러 생물들도 더불어 산다. 우린 좋은 삶든 나(我)라는 육신이 담겨진 이 가족자루를 닦고 먹고고 웃가지도 걸쳐져서 그러

저러 곱모양새를 가꿔줘야 한다. 그런데 이 자루를 이렇듯 닦고 먹고고 입혀주며, 또한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맛과 냄새를 가리며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보게 하는 아트(我)의 정체는 과연 뭘까? 다른 한편, 아나트만(無我)이란 모든 존재에는 영속적이며 독립적인 자아가 없음을 뜻하는데, 이는 불교철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자주 곡해되는 명제인 동시에 불교를 알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다르마(佛法)란 모든 걸 초월한 완전한 해방을 향한 길일까? 아니면 그저 말하고 듣기 좋은 말씀들일까? 어쨌든 절제와 규기를 가르치는 불교, 그리고 과시와 허영을 꾸며주는 미용실은 서로 전한 사이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녀의 칼럼은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지, 밀 더진 가족자루에서 새나 오는 화두인지 나오진 알 수 없다. 출처: 바브라 오브리언(미주리대학 언론학 전공, 공수선원 주무, ABT 불교담당자) 변안: 성휴스님

영문판 반야심경 일부 정정

국제불교장교위원회와 마하마티는 2월 12일 세계불교기구의 회원 불자들이 독경하는 영문판 <반야심경>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영역 불경의 정정은 불교에 아직 생소한 서구의 재가불자들이 예컨대 슈나타를 단순히 공(空)으로만 속단하고 곡해할 소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음률과 흐름은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동 승가협회 상그하라시타가에서 수년간 집중적인 심의 끝에 공인한 것이다. 쿠마라지바 등 역대 고승대덕들이 번역과 정

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한역 불경에 비해 영역 불경은 현재도 신중할 재해석과 교정이 진행 중이다. 당초의 고승 현장 법사의 한역본 <반야심경> 중 제법(諸法)은 종전의 영역인 'All things'로 하되 공상(空相)은 'the primal void'에서 이제부터는 'by nature void'라 쓰인다. 그리고 이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은 "They are not bom or destroyed, Nor are they stained or pure. Nor do they wax or wane(생기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럽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며, 늘거나 줄지 아니함)이라 등으로 바뀐다. 출처: WBP

남아프리카에 전법 인프라 구축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불교협회회는 2월 14일 국제전법에 있어 가장 취약지역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에 전법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상공업도시인 요하네스버그의 에머렌시아에 소재한 산티폴라 지부는 이미 3년 전부터 흑백 갈등은 물론 부족 간 충돌을 경감하는 완충역할을 해왔다. 또한 금년 초부터는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공동하여 광범위한 사이버 전법 및 계몽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출처: ABF

"전법 활동엔 주·조연 따로 없죠"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스 포드

할리우드의 불자스타 중 해리스 포드 처사님만치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불교발전을 호소한 이도 드물다. 그는 리처드 기어 법사님, 사론 스톤 보살님 등 여러 도반과 함께 달라이라마의 미국방문과 전법활동을 돕고자 각종 행사와 초청강연회를 주선하고 마스크를 동원했다. 또한 그는 달라이 라마의 소년기와 중국의 티베트 강점을 주제로 한 영화 '티베트에서 청년'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으나 보이지 않는 산파의 역할도 했다.

그는 영화마다 주연을 도맡지 않던 전법에선 어떤 보조역할이나 조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개성보다는 불자와 타 종교인을 구분 짓는 근본특성, 곧 비록 마음에서 비롯한다. 불교는 깨우침을 향하는 길이며, 불자는 스스로 체험한 깨우침의 기쁨을 이웃들도 스스로 체험하길 바란다. 대중전법이란 피라미드판대처럼 가장스러운 협잡이나 험박일 수도 없으며, 특히 선교 기복주의에 올리기 위한 '영혼 사냥'의 기록경기도 아니다. 불자들은 나 자신은 물론 이웃들도 늘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모든 생각은 나 혼자서 다 할 테니 너희들은 그저 나만 믿고 따르라는 제법은 이웃들의 자존심을 병들게 하고 이성을 죽이는 악랄한 사고대행이자 가스room 오만이다. 현대 서구인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종교적 독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가로막는 음험한 신앙적 위선에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를 '눈먼 믿음', 그리고 '가없이 열린 길'이라 일컫는다. 이는 맹목적 신앙, 곧 '눈 감은 믿음'의 불안감과 '막다른 길'이란 위기감의 조성을 매우 품위 있게 거부하는 표현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불제자들은 서로를 함께 가는 길 벗, 즉 도반이라 한다. 전법은 전부가 아니며, 전법을 행하는 도반 또한 전공을 다루는 전사가 아니다. 해리스 포드

처사님처럼 현란한 주역보다는 담담한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이다. 지금 미국은 신 종교개혁, 또는 정신문화 혁명이라 할 대변혁을 겪고 있다.

조선 말기 국가적 위기에 서구열강의 식민지개척의 계락에 편승한 여러 종교들이 이 땅으로 기어들었다.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은 거기서 현실도피와 신분상승을 꿈꾸고, 이른바 기독교를 박탈당한 일부 사대부계층은 입지회복을 꾀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의 경우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회는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터라, 간사하고 불결한 입신출세 등에 종교를 활용할 까닭이 없다. 다만 그들은 건국 이래 주류들이 묶은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 즉 WASP라는 사회 기득권층에 극히 환멸을 느끼고, 특히 특정 종교적 전통에

"종교적 독선·신앙적 위선 거부"

9·11테러 이후 매년 2만명 개종

강한 혐오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대안이 불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예컨대, 미국의 주요 매스컴들이 보도하듯, 이른바 9·11 테러 이후 해마다 약 2만 명이상의 기독교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을 맡았던 해리스 포드 처사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는 우리 서구인들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즉, 신앙의 자유란 믿음의 자유며, 거기에는 믿지 않을 자유, 즉 불신의 자유도 포함된다." 백주 대로상에서 볼록한 다수를 향해 '불신지옥' 따위를 쏘아대는 어느 원시인 마을의 미개인들이 들으면 개겨 품을 물고 까부러질 소리다. "그런데 해리스 포드 처사님, 저 하나만 여쭙습니다. 처사님의 말씀에 담긴 참뜻이 상생(相生)과 원융(圓融)을 그 어떤 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휴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Look at the fish swimming about! Isn't it so peaceful?"

-해엄치는 저 물고기들 좀 보게. 얼마나 평화로운가?

One day a master and his disciple were walking around a lotus pond. "Look at the fish swimming about! Isn't it so peaceful?" said the master, "They are enjoying themselves indeed." "Reverend master, you are not a fish," bluntly retorted the disciple, "So how could you truly know that they are enjoying themselves?" "You are not me," smiled the master. "So how do you know that I do not know that the fish are enjoying themselves?" And the fish whispered each other, "That spoiled brat disturbs our peace." "Yea, you get lost!"

어느 날 제자와 연못가를 산책하던 스승이 말했다. "해엄치는 저 물고기들 좀 보게. 얼마나 평화로운가? 참 즐겁게도 노는군." 그러자 제자가 다짜고짜 내뿜었다. "존경하는 스승님께서는 물고기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즐거워하는지 어찌 아십니까?" 스승이 웃었다. "자네 또한 내가 아닐세. 현대 자네는 내가 저들이 즐거워한다는 걸 왜 모를 거라 생각하나?" 물고기들이 속삭였다. "저 싸수없는 애송이가 우리 분위기를 확 잡치는군." "맞아, 맞아, 넌 꺼져!"

변안: 성휴스님 / 그림: 이태수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모음비천-구주일통-홍수요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 1. 금윤법계-불문승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안혹세속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예기한다.
- 2. 모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 3. 구주일통 팔기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예기함.
- 4. 홍수요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계, 승승등대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계 회경열렬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말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극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 A Time = 60분 *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 2006 스페인카 국립무용 초청 * 2007년 네덜란드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